“대종사 밝힌 지혜 등불 이어가겠다”

동화사 무공 대종사 영결식
8월 15일 교구장으로 엄수
사부대중 · 지역 인사 애도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전 동화사 주지 일하당 무공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8월 15일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제9교구장으로 엄수됐다. 사진은 다비식 모습.

평생을 수행 정진과 후학 양성에 힘쓴 전 동화사 주지 일하당 무공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8월 15일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조계종 제9교구장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동화사 조실 진제 대종사를 비롯한 교구 사부대중과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지성 대종사, 은해사 주지 성로 스님, 망월사 주지 동진 스님, 철웅문도회 회주 현근 스님 등 불교계 주요 인사와 주호영 국회정각회 명예회장, 강대식·윤재옥 국회의원 등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대종사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동화사 주지 선광 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대종사가 평생 밝힌 지혜의 등불을 더욱 밝혀 삼천대천세계의 희망과 행복의 길잡이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추모했다.

동화사 조실 진제 대종사는 추도법어를 통해 “사생을 일상 중에 잘 지어 갈 것 같으면 여생이 편안하고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다. 마음을 밝혀야만 훌륭한 스승, 수행승을 만날 수 있다”면서 “우리는 날마다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 만인에게 앞서는 밝은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고 전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조사에서 “동화사는 한국불교에서 많은 수행자들이 배출된 곳이고 종단이 힘들 때 어른 스님들의 큰 가르침이 있어 버팀목이 됐다”며 “종단 소임자로서 큰스님의 뜻을 받들겠다. 속히 스님께서 다시 돌아와 함께 정진하고 중생제도 할 수 있는 인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 지역 원로 스님들의 모임인 대가회 회장 운성 스님과 동화사 금당선원 유나 효광 스님도 추도사를 통해 대종사의 수행정신과 가르침을 기리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효광 스님은 “팔공산의 병풍바위의 호곡 소리와 낙동강의 대한수가 대도의 눈물로 삼가 깊은 추도의 마음을 올린다”며 “와야 할 때 문득 오고 가야 할 때 문득 가니 사숙의 열반 또한 그러하다. 부디 즉득왕생해 변화신을 나투시고 속환사바하시어 광도중생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투망금린유체수, 회도석마출사롱’(透網金鱗猶滯水, 回途石馬出紗籠)이라. 그물을 벗어난 금린은 오히려 물에 갇혔는데, 길의 돌말은 뿌리를 벗어났도다”고 게송으로 추도사를 전했다.

능인고에서 스승과 제자로 인연을 맺은 주호영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도 추도사를 통해 각별한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주호영 회장은 “1975년 고등학생 때부터 50년 이상 제자로서 가까이에서 큰스님을 모셔 왔다. 육신을 잃은 것과 같은 슬픔을 느낀다”며 “좀 더 가까이서 좀 더 잘 모시지 못했다는 회한에 젖는다”고 말했다.

문도 스님들은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 흔들림 없이 수행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문도대표 보정 스님은 “늘 청렴하고 바르게 살라는 그 유지를 잘 받들어서 앞으로 끝까지 수행정진하고 어른 스님들을 잘 모시겠다”고 밝혔다.

“청빈·천진으로 걸림 없는 삶”

17일 원적한 청현 대종사
19일 광주 무각사서 영결식
송광사 다비장서 다비 엄수


광주 무각사 회주 중산당 청현 대종사의 영결 다비식이 8월 19일 무각사와 송광사에서 엄수됐다.

8월 17일 원적에 든 중산당 청현 대종사의 마지막 길에 사부대중의 추모가 이어졌다.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 스님)는 8월 19일 설법전에서 ‘회주 중산당 청현 대종사 영결식’을 봉행했다. 영결식을 마친 뒤 법구는 조계총림 송광사 다비장 연화대로 이운돼 사부대중의 염불 속에 다비의식이 봉행됐다.

무각사 주지 청학 스님은 행장을 통해 청현 스님이 은사 향봉 스님을 비롯한 당대 선지식들을 모시며 수행의 기틀을 다진 뒤 전국 제방 선원에서 정진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평생 주지 소임을 맡지 않은 채 수행자의 본분을 지켰으며, 80세가 넘어서도 배낭 하나를 메고 세계 각국의 불교성지와 오지를 만행할 만큼 자유롭고 걸림 없는 삶을 살았다고 회고했다.

쌍봉사 회주 영조 스님은 추도사에서 “대종사님은 말씀보다 따뜻한 미소와 행동으로 하심의 가르침을 보여주신 분”이라며 “소중한 인연들에게 온정을 나누셨던 보살심을 본받아 후학들도 그 길을 따르겠다”고 추모했다.

문도를 대표해 상좌 여일 스님은 “평생 검소하고 걸림 없는 수행자의 본분을 보여주신 은사 스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영결식을 마친 뒤 법구는 조계총림 송광사 다비장으로 이운됐다. 송광사 방장 현묵 스님과 주지 무자 스님, 조계총림 대중 스님과 불자들은 연화대 앞에서 청현 스님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현묵 스님은 “청현 대종사께서는 평소에도 자유로운 영혼으로 유유자적하게 살아오셨고, 마지막 떠나시는 길까지 사바세계의 모든 집착과 미련을 다 비우고 열반에 드셨다”고 추모했다.

이어 “다시 사바세계에 나투시어 거룩한 보살도를 성취하고 중생을 널리 제도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스님의 ‘속환사바’를 발원했다.

법구가 안치된 연화대에 불길이 오르자 대중은 “스님, 불 들어갑니다”를 외쳤다. 이어 ‘나무아미타불’을 한목소리로 염송하며 청현 스님의 극락왕생과 속환사바를 기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복 81주년 “총소리 대신 웃음소리를”

세종전통문화체험관 · 광제사
전통문화체험 · 세계평화축제



세종전통문화체험관(관장 탄대 스님)이 광복 81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가족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화성부모, 목성아이’, ‘독립운동가 한상차림 현대적 재해석’, ‘광복 그날의 함성, 그때 그 간식’ 등 3개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족의 의미와 광복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15일에는 1층 다목적실에서 ‘화성부모, 목성아이’를 진행했으며, 16일에는 사찰음식체험장에서 ‘독립운동가 한상차림 현대적 재해석’을 진행했다. 독립운동가와 관련된 음식을 직접 만들고 먹어보면서 광복절과 독립운동가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했다.

17일에는 ‘광복 그날의 함성, 그때 그 간식’을 주제로 2층 문화체험실에서 태극기를 활용한 전통등을 만들고 사찰음식체험장에서는 독립운동가와 관련된 간식을 직접 만들었다.

관장 탄대 스님은 “앞으로도 사찰음식과 전통문화, 역사를 연계해 민족혼을 고취하고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확산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세종 광제사(주지 탄대 스님)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8월 13일 대웅보전과 앞마당에서 ‘세계평화와 화합을 위한 세계평화축제’를 열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기원했다.

행사는 문화공연에 이어 개회식과 세계평화 북소리 울리기, 인사말, 세계평화선언문 낭독, 세계평화 장학금 전달, 전쟁 희생자를 위한 살풀이, 세계평화 촛불 밝히기와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으로 진행됐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사찰음식은 수행의 연장선”

평택 수도사, 17일 ‘사찰음식축제’
스포츠미래포럼…조국 전 대표도



사찰음식을 직접 만들고 공양하며 불교적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평택 수도사(주지 적문 스님)는 8월 17일 사찰음식체험관에서 ‘한국스포츠미래포럼과 함께하는 수도사 사찰음식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축제에는 한국스포츠미래포럼 회원들을 비롯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관계 및 체육계 인사들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적문 스님의 지도로 음식을 직접 만들고 공양했다.

본격적인 조리에 앞서 적문 스님은 사찰음식에 담긴 ‘용맹정진’의 의미를 설했다. 스님은 “청정과 유연, 여법의 정신이 육미(단맛, 신맛, 짠맛, 쓴맛, 매운맛, 떫은맛)와 조화를 이뤄 담백함으로 표현된 것이 사찰음식의 본질”이라며 “육식을 멀리하는 채식을 넘어, 재료를 가꾸는 순간부터 음식을 만들고 발우공양을 마칠 때까지 온 우주의 노고에 감사하고 모든 생명의 공존을 기도하는 수행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이 만든 음식은 옥수수장떡이다. 참가자들은 한 톨의 쌀과 한 뿌리의 채소에 담긴 우주의 은혜를 생각하는 ‘오관게(五觀偈)’를 봉독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어 적문 스님의 시연을 살펴본 뒤 조별로 나눠 음식을 만들었다.

조리 후에는 각 팀이 만든 옥수수장떡을 선보이고 평가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장떡 만들기에 함께한 조국 전 대표는 “광복절을 기념해 장떡 위에 태극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고 장떡에 담은 의미를 소개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수도사가 친환경 재료로 마련한 대중공양을 함께하며 행사를 원만히 회향했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이정아 대불청 전주지회장 취임

8월 16일, 전북불교회관서



대한불교청년회 전주지회 신임 회장에 이정아 불자<사진>가 취임했다.

대한불교청년회 전주지회는 8월 16일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4층 법당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이정아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임 회장님들과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전주지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누구나 찾아오면 즐겁고 가족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따뜻한 전주지회를 가꾸어 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임하는 김대현 전 회장은 “그동안 곁에서 따뜻한 마음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모든 불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제 평회원으로 돌아가더라도 전주불교청년회의 무궁한 발전과 봉사를 위해 헌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광수 금산사 신도회장은 축사를 통해 “청년 불자가 바로 서야 불교의 미래와 포교가 살아난다”며 “청년회가 더욱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신행단체들과 적극 협력해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사서 펼쳐지는 ‘예술 인드라망’

8월 31일까지 ‘화엄전—몸짓과 낭송’ 개최

천년고찰 지리산 화엄사가 춤과 시, 국악과 현대미술이 어우러지는 문화예술의 장으로 변신한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보제루와 성보박물관에서 ‘화엄전(華嚴展)-몸짓과 낭송’을 개최한다. 이어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해 온 한국 작가들이 참여하는 ‘경계의 화엄(華嚴)-파리에서 구례까지’를 통해 화엄사상을 현대예술로 풀어낸다.

‘화엄전-몸짓과 낭송’에는 파리와 한국, 도쿄를 오가며 활동하는 아방가르드 무용가 신은주(애나벨 신) 작가와 시 낭송가이자 한지 퍼포먼서인 엄경숙 국제하나예술협회 대표가 참여한다. 신 작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춤과 드로잉, 미디어아트로 표현하며, 엄 대표는 QR코드를 통해 시낭송을 들으며 작품을 감상하는 ‘듣는 전시’를 선보인다.

이어지는 ‘경계의 화엄-파리에서 구례까지’는 ‘경계 너머의 유목민적 사유’를 부제로 파리에서 오랜 시간 창작활동을 이어온 한국 작가들이 천년고찰 화엄사에서 작품세계를 펼치는 ‘예술적 귀향’의 자리다.

홍현주·문창돈·최현주·훈 모로·박우정·홍일화·박인혁 등 7명의 작가가 참여해 회화와 조각, 설치, 영상, 사진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이들은 파리의 대표적인 한인 예술인 단체인 ‘소나무작가협회’ 회원들로, 파리에서 이어온 ‘유목의 시간’과 화엄사의 ‘천년의 시간’을 연결하며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든다.

화엄사 관계자는 “서로 다른 예술이 모두 화엄의 ‘연결’이라는 하나의 정신으로 이어진다”며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수행과 예술이 서로를 비추며 새로운 문화예술의 인드라망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월탄 대종사 4주기 다례재

8월 17일, 청주 용화사서



청주 용화사(주지 각연 스님)는 8월 17일 용화보전에서 미륭당 월탄 대종사 4주기 다례재를 봉행하고 수행과 종단 정화, 전법에 평생을 바친 스님의 삶과 원력을 기렸다.

법주사 조실 지명 스님은 “월탄 스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던 분”이라며 “금오 노스님 밑에서 화두를 들고 공부에 전념했고, 정화운동이 일어나자 종단을 위해 몸을 던졌으며 종단이 어지러울 때는 안정을 위해 자신을 바쳤다”고 회고했다. 이어 “큰스님의 신심과 원력이 우리 모두와 국민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추모했다.

문도대표 성운 스님은 “스님께서는 전법도생뿐만 아니라 수행에도 철저했다”며 “문도들도 스님과 인연을 맺은 분들을 스승 모시듯 모시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용화사 범성 스님의 집전으로 종사영반을 봉행했으며, 법회 후에는 부도탑을 찾아 참배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광주 관음사, ‘팥빙수’ 자비나눔

8월 14일, 500인분 전달



광주 관음사(주지 소운 스님)는 8월 14일 광주 자비신행회(상임이사 김삼옥)와 함께 충장동 상인과 주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자비의 팥빙수 나눔’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8일 동구불교협의회와 동구청이 체결한 폭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비의 팥빙수 나눔’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관음사에서 직접 얼음을 갈고 단팥과 밀떡, 현미 튀밥, 망고, 블루베리, 콩가루, 견과류, 연유 등을 더해 팥빙수 500인분을 만들었다. 완성된 팥빙수는 충장동 상가와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됐다.

소운 스님은 “관음사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앞으로도 이웃들과 함께하는 자비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